

민흘림기둥

기둥머리의 지름이 기둥뿌리의 지름보다 작게 마감된 기둥.

한국 목조건축의 기둥은 기둥머리·기둥몸·기둥뿌리의 크기가 동일한 원통기둥, 기둥몸이 가장 큰 배흘림기둥과 민흘림기둥의 3가지 모양이 있다. 기둥머리보다 기둥뿌리의 지름을 크게 하는 것은 안정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 구조적 효과보다는 시각적인 효과가 더 크다. 민흘림기둥은 동근기둥에 많이 사용하며, 해인사 응진전(應眞殿), 화엄사 각황전(覺皇殿), 수원 장안문에서 볼 수 있다. 사각기둥에서도 민흘림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석탑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정림사지(定林寺址) 5층석탑, 익산의 미륵사지(彌勒寺址) 석탑이 좋은 예이다. 평남 용강의 쌍영총에 있는 2개의 8각 돌기둥도 민흘림기둥이다.

배흘림기둥

건축물 기둥의 중간이 굵게 되고 위·아래로 가면서 점차 가늘게 된 주형(柱形).

기둥 높이의 3분의 1 지점이 제일 굵고 위는 아래보다 더 가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둥에 배흘림을 두는 것은 구조상의 안정과 착시현상(錯視現象)을 교정하기 위한 심미적인 착상에서 나온 수법으로 서양건축의 엔타시스와 같은 것이다. 배흘림기둥은 그리스의 신전(神殿) 건축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중국이나 일본의 건축에서도 고대에는 흔히 사용하였다. 그러나 배흘림기둥을 꾸준히 사용해 온 것은 한국 건축물이다. 한국에서는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 이미 기둥의 배흘림이 뚜렷이 나타나며 고려시대의 대표적 건물인 부석사 무량수전(浮石寺無量壽殿)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많은 건물, 즉 무위사극락전(無爲寺極樂殿)·화엄사 대웅전(華嚴寺大雄殿)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민흘림기둥

배흘림기둥

뜬구조 (Floating structure)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뜬구조 (Floating structure)

건물의 방진(防振)을 위한 구조.

건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충격 및 기계 등에 의한 진동이 구조체를 따라 벽체나 바닥을 진동시키는 고체 전달음을 차단하기 위해 천장·마루·벽의 내장(內裝) 부분을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로부터 탄력성 있는 방진재(防振材) 등에 의하여 분리시켜 지지시키는 구조를 말한다.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지식관리시스템. 조직내인적자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하여 공유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정보시스템이다. 지식관리시스템은 의사결정의 주체인 인적자원이 떠나면 그가 갖고 있던 지식자원도 함께 떠나가고 기업의 지적자원이 소실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인적자원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은 비정형의 형태로 존재한다. 즉 기업내 각 개인들은 자신의 지식을 각종 문서로 작성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업무담당자와 의사교환을 하고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최종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관리시스템의 기본개념은 인적자원이 소유하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인 지적자산을 기업 내 축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민 편집위원 / (주)보성구조 소장 / BSTG@hananet.net